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159>

JCCT 2020-8-19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A integrated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physician assistant

문혜경*

Heakyung Moon*

요약 본 연구는 PA(전담간호사)의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PA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향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체계적 문헌 고찰적 방법론을 통해 'PA(전담간호사, 의사보조인력)' 검색어로 KISS, 국회도서관, NDSL,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와 의료계 전문지인 청년의사신문 등 총 12개 신문에 보도된 전담간호사 관련 주요 사건 관련 기사 15편 등 총 23편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적 융복합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8편의 논문 분석 결과, PA의 업무와 관련된 소진, 직무스트레스 및 불명확한 업무범위 및 규정 부재는 직무 만족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5편의 보도기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 대립 속에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제화 및 교육제도 확립이 시급함을 파악하였다. 향후 P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전담간호사, 운영실태, 개선방안, 교육프로그램, 문헌고찰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work of the PA and provide the direction and evidence of policy making on the PA scheme. A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total of 23 articles of papers and Internet news through systematic review methodology. A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using KISS, NDSL, RISS,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11 major domestic daily newspapers and Youth Medical Newspaper. The analysis of eight papers showed that the PA's work-related exhaustion, job stress, unclear scope of work and lack of regulations reduced job satisfaction. Through 15 press articles, it was understood that it wa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and education system for qualifications and work as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amid a conflict of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of related agencie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P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institutional devices suitable for Korean affairs and prepare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Physician assistant,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Systematic review

*정회원,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20년 06월 28일, 수정완료일: 2020년 07월 24일

게재확정일:2020년 08월 14일

Received: June 28, 2020 / Revised: July 24, 2020

Accepted: August 14, 2020

*Corresponding Author: hkyung486@hoseo.edu

Dept. of Nursing Science, Hoseo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PA(Physician Assistant) 제도가 1960년대 처음 도입된 미국은 현재 130개 이상의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석사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빈민지역의 부족한 의사인력과 제대 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1] 처음 도입된 미국의 PA는 신체검진,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 검사처방과 해석, 시술 수행, 수술 보조, 환자교육 제공 등을 하며 [2] 일부 주에서는 처방 또한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3].

국내 종합병원의 전문지원인력은 전문간호사, PA(전담간호사), 단순 보조인력으로 분류된다. 1980년대부터 외과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으로 P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4]. 대한전공의협의회 2018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와[5]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6] PA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알 수 있으며 환자만족도 증가와 전공의 인력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업무는 검사결과확인, 개별 환자 라운딩, 경과기록 작성, 위임된 검사처방, 프로토콜 내 약처방, 위임된 약처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과계 업무가 주된 업무였던 초창기와 달리 PA들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계 뿐 아니라 내과계에서도 꾸준히 그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PA는 총 2,175명이며 외과계 1,628명, 내과계 547명이다[7].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와 전공의 등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규정 및 교육제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업무범위 문제,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문제발생 가능성 등으로 PA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대형병원의 의사 대신 수술을 진행한 PA에 관한 사건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PA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였다[8]. 그럼에도 여전히 기피 진료과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와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저임금으로 대체하려는 병원의 이해관계 속에 PA라는 이름의 의사보조인력들은 불법 보조인력으로 낙인찍힌 채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PA들 스스로도 정체성 혼란

과 역할갈등 및 법적인 제도의 부재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9].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1년 ‘의사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PA에 관한 제도화와 협의를 위해 포럼을 진행하고 간호정책 TF를 구성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10],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지역별 업무 영역에 대한 첨예한 대립만 지속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11].

지금까지 PA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역할갈등[12], 소진[13], 직무스트레스[14], 직무만족도[15],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16]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지역별 인식 및 구체적인 대안을 통한 근본적인 법적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PA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도 최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현실적인 PA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매체로 사료된다. 최근 인터넷 발달과 모바일 사용의 증가로 온라인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17] 인터넷 신문이 보편적인 미디어로 자리 잡고 개인 일상부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사실적이며 전문적인 내용으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PA들에 관한 국내 문헌 및 인터넷 뉴스를 분석하여 PA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화 및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A의 업무, 정책 및 인식에 대한 관련문헌 및 인터넷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전담간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법제화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문헌에 게재된 전담간호사 관련 논문을 분석한다.

2)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전담간호사와 관련된 기사를 주제별로 분석한다.

3) 전담간호사 관련 논문과 기사에 따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의 업무, 정책 및 인식에 대한 최근 5년 이내 국내 문헌 및 인터넷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PA의 운영실태 및 법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분석

국내문헌에 게재된 전담간호사 관련 논문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출판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한국학술정보원(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PA(전담간호사, 의사보조인력)' 검색어로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85편의 논문 중 초록만 발표된 연구, 예비조사연구, 질적연구, 학위논문 및 전담간호사 관련 연구가 아닌 것을 제외하여 총 8편을 선정하였다.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근 국내 주요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11개와 의료계 전문지인 청년의사신문 등 총 12개 신문에 보도된 전담간호사 관련 주요 사건 관련 기사이다. 분석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빅 카인즈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기사 검색어로는 문헌 검색과 동일하게 'PA(전담간호사, 의사보조인력)'라는 주요 키워드가 본문이나 제목에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해당기간 총 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나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성 기사나 전담간호사가 중심이 아닌 기사를 제외하고 문자로 표현된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15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할 문헌은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고찰 핸드북[19]과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그룹이 제시한 체계적 고찰 보고지침[20]에 따라 수행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헌검색과 사전에 정해진 포함/배제기준에 따른 문헌선택,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뮤티 위험 평가 등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구 과정을 거친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임상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통계학자 등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두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선택을 하였으며 두 연구자의 합의를 통해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인터넷 신문기사는 관심 현상에 대한 공통 주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6단계를 적용하였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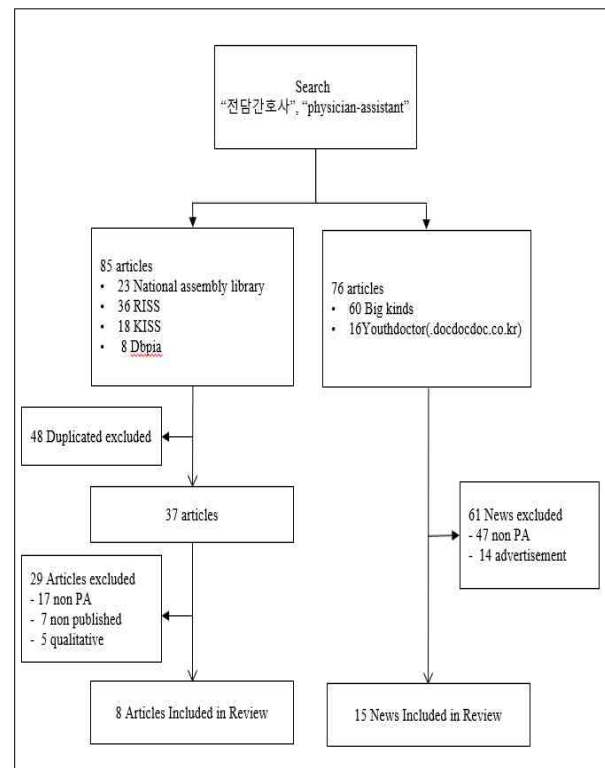


그림 1. 문헌검색 및 선정 과정
Fig. 1. Literature search flow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PA와 관련된 국내 문헌들을 PRISMA 권고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찰한 방법론적 연구이며 분석 대상 논문은 총 8편이며 관련 인터넷 기사는 총 15편이다. PA는 역할갈등, 직무 스트레스, 소진 및 역할정립과 관련하여 법적, 행정적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환경 내에서도 PA 또는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의 혼재 속에 의료진들의 인식차이로 인한 역할의 차이와 그로 인한 만족도 또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에서 PA(전담간호사)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사에 표현된 간호사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를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2개의 주제와 4개의 하부주제, 1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인터넷 기사에 표현된 PA(전담간호사)의 모습은 ‘의사 보조 인력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간호사’와 ‘전문직으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간호사’로 나타났다 [표 2]와 같다.

표 1. 대상문헌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viewed studies

(n=8)

Year	No. of subject	Official name	Variables	Improvement point
2018	112	PA	Role Conflic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1. clarify the scopes and domains of nursing service 2.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nursing specialization
2017	153	PA	Job Satisfaction	1. community formation to promote community Consciousness 2. the rapid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the formation of an educational base are professional.
2017	156	PA	Role Conflict Resilience Burnout	1. develop a program designed to reduce role conflict and enhance resilience.
2016	136	PA	Occupational Stress Burnout Job Satisfaction	1. develop a program for PAs to reduce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in the health care environment
2015	150	PA	Bullying in workplace Burnout Emotional Intelligence	1. improvement plan for bullying in workplace to alleviate PA nurses' burnout 2. strategy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velop education and program
2015	184(34)	PA (PA 34)	Perception of Healthcare Providers	1. develop and expand role of nurses for the change of PA's role as assistant 2. improve PA's professionalism and standardize PA's role in the important part realized by healthcare professionals for eleva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s
2014	704	PA	Roles and Administrative Facts	1. provide 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establishing protocols with legal protection 2. develop professional independent scope of care are recommended to deliver safe and efficient medical services
2009	123	Advanced practice nurses & Nurse specialists	Physical Assessment Skills and Education Needs	1. provide including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nurses' skill levels and needs

표 2. 인터넷 뉴스기사 분석 결과

Table 2. Topic Analysis of PA in Korean Newspapers

(n=15)

Topic	Subtopic	Concept
a nurse who is badly treated as a doctor's assista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nout	overwork stress
		continued disparagement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ersonnel filling medical vacancies due to lack of specialty resident
		negative prejudice against PA
	identity confusion	Lack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PA
		Lack of education system for training PA
a professional nurse	Necessary workforce at the medical field	performance recognition
		Role of companion in patient care process
	a nurse of expert knowledge and vocation	Important support personnel to minimize medical vacancies
		Systematic pati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문헌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한 연구방법론적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PA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국내 문헌에 나타난 전담간호사 주제에 대한 논의

현행 의료법상 PA 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 내 존재하는 PA들의 업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속한다. 이와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발생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은 매우 시급하며 의사보조업무로서의 수행이 아닌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겠다. 이러한 합법적 제도화를 통해 PA의 효율적 체계 관리를 구축하여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고 전공의와의 갈등 또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및 간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참여한 대립 속에 PA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PA의 업무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PA 관련 연구는 업무와 관련된 불명확한 범위와 책임 및 권한, 소속부서 등으로 인한 소진과 직무갈등 및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위주의 의료행위의 포괄성과 경직성에 의해 직역 간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PA의 업무범위와 정부의 감독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에게 의사보조인력 지위를 소개하며 전공의 교육에서도 이들의 관계를 긍정적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내 인터넷 기사에 나타난 전담간호사 주제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 인터넷 신문에서 PA관련 기사보도 건

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이었다. 간호사 관련 기사보도 건수가 최근 5년간 704건으로 대중매체에 간호사의 모습이 많이 드러내짐을 생각한다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첩예한 입장만 보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긍정적 주제와 부정적 주제 기사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의사 보조 인력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간호사’와 ‘전문직으로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간호사’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대립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간호사의 이미지는 국민건강이 위협되는 전 시상황이나[22]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의 유행시기에서 간호사를 영웅이나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자주 표현되었다[23]. 이는 간호사를 전문의료인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정과 관심에 의한 결과라 보여진다. 하지만 PA에 관한 기사주제는 PA간호사의 업무, 과실, 불법의료에 관한 기사가 많으며 임상 현장에서 꼭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인 모습에 대한 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PA 간호사의 간호직업의 발전 가능성[24]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직 이미지 전달이 대중매체에 나타나도록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25].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담간호사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별도 구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료 과별 업무 영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필요성에 기반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

둘째, 전담간호사 제도를 위한 표준화된 체계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전담간호사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로 간호사의 이직률 및 사직률 연관성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Buchan, J., O'May, F., and Ball, J. (2007). New Role, New Country: introducing US physician assistants to Scotlnd. *Human Resources for Health*, 5(13), 1-8.
- [2]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Retrieved August 12, 2012, <http://www.aapa.org>
- [3] Y.D. Kwon, Y.H. Sung, I.G. Kwon, and M.S. Hwa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Clinical Nurses with Expanded Rol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4(3), 99-115.
- [4] G.C. Lim, G.O. Park, and B.J. Kim. (1997). A investigative study of role expectation on the clinical nurse specialis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3(1), 65-82.
- [5] S.S. Kim, W.H. Kwak, S.M. Moon, and Y.H. Sung. (2006). Development of a Role Model for Physician Assista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1), 67-80.
- [6] Y.M. Kim, K.J. Jeon, and J.Y. Kim. (2011). Business report: Analysis of Hospital Nursing Manpower Arrangements and Tendency for Working Conditions.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 [7]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8). A Survey of Hospital Nursing Personnel. <https://khna.or.kr>.
- [8] S.C. Song. (2018.11.02.).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41>
- [9] C.Y. Kwak, and J.A. Park. (2014). Current roles and administrative facts of the Korean physician assistant. *Digital Contents Society*, 14(10), 583-595.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583>
- [10] S.H. Kim (2019.04.06.).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5255>
- [11] S.Y. Song. (2019.04.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idxno=1067016>
- [12] G.N. Lee, and K.S. Jang. (2018). The Effect of Role Conflict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s. *Nursing & Health Issues*, 23(1), 46-55.
- [13] K.S. Lee, and E. Park. (2017). Influencing Effects of Role Conflict, Resilience on Burnout in Physician Assista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9(5), 1424-1434. <http://dx.doi.org/10.13000/JFMSE.2017.29.5.1424>
- [14] H.G. Kim, H.S. Kang. (2019). Effects of Visual Media Programs on Job Stress and Burnout in Emergency Room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7(4), 32-39. <https://doi.org/10.17703/IJACT.2019.7.4.32>
- [15] T.U. Jang, and E.J. Choi. (2016).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Stress, Burnout and

-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 Assist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1), 122-135.
<https://doi.org/10.5932/JKPHN.2016.30.1.122>
- [16] S.K.Kwak, and S.Hyun. (2019). Explori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2). 22-30.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583>
- [17] J.H. Lee. (2000). *Mass media and Society*. Seoul : Yangji Publishing.
- [18] H.J. Kim, and J.Y. Jang. (2011). Discovering News Keyword Associations Using Association Rule Mining.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1(6), 63-71.
<https://doi.org/10.7236/JIWIT.2011.11.6.063>
- [19] Cochrane Collaboration. 2011. Available from www.cochrane-handbook.org.
- [20] S.Y. Kim, J.E. Park, H.J. Seo, H.S. Seo, H.J. Son, C.M. Shin, Y.J. Lee, B.H. Jang, and D.S. Heo. (2011).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8, 1-287.
- [21] Braun, V. and Clarke,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22] J.J. Kim. (2011). Planning a physician assistant system for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12), 1240-1244.
- [23] L. Hall, J. Angus, E. Peter, and L. O'Brin-Pallas. (2003). Media portrayal of nurses' perspectives and concerns in the SARS crisis in Toronto.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5(3), 211-216.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3.00211.x>
- [24] S. Park, S. Park, C. Lee, M. Yun, and K. Hwang. (2017).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Internet Newspapers. *Culture and Convergence*, 39(6), 677-700.
- [25] E.Y. Choi. (2018).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1), 153-163.
<https://doi.org/10.17703/JCCT.2018.4.1.153>

※ 본 연구는 2018년도 호서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18-032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Hoseo University Annual Academic Fund in 2018. (No.: 2018-0323)